

늘푸른숲

2024. 8



제423호 | 발행일 2024년 8월 11일 |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신영철A | 교회 표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Tel. 053) 667 8800 Fax. 053) 667 8998 | <http://pomo.net>



포토에세이

서 우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sacrament

“그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42절”

자부심과 자존심



이지훈 담임목사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에 의하면 **자부심**은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부심의 근거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고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헌신이 나의 자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는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지훈 목사 드림

8월을 열며 생태적 회심이 필요한 시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며칠째 에어컨도 없이 지냈다. 지난 며칠 감기와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갈수록 힘들어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이다. 오한이 들어 에어컨과 선풍기를 켤 수도 없던 며칠을 보내며, 팬데믹 시기에 SNS에 게시되었던 어떤 글이 떠올랐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멸종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략...)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 주세요.
싸움을 멈추세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지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구와 그 안에 공생하는 생물들을 보살펴주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온 것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이러스가 시작된 특정 도시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개발과 성장에 도취된 전(全)지구적 문제가

며, 그러므로 전 인류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터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또 다른 팬데믹을 불러올 것이고, 그런 감염병은 인류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그 세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지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고(창1:1~31), 그 피조물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창9:17).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만 읽어왔기에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아닐까.

파괴되어 가는 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세계의 돌봄’과 같은 의미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그 속에 함께 사는 모든 생물(물론 인간도 포함)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생태적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 배지연 집사(교회보팀)





2024 August | Vol. 423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8월을 열며 _ 배지연 집사
- 05 목차
- 06 행사 | 주일학교 여름 행사
- 15 청년부 |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_ 이유지 청년
- 16 봉사팀 탐방 | 국내전도위원회 우물가분과 _ 교회보팀
- 18 나의 한 구절 | 남봉락 집사
- 20 공감의 장 | 뒤늦게 깨닫게 된 사실 _ 박용수 집사
- 22 Book | 성례, 영적 유익의 통로 _ 장철웅 목사
- 24 행사단신 | 7월의 범어
- 26 범어 '창(窓)' | 부자지간 _ 신주철 집사
범어범어
- 27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영아부

안녕하세요~ 영아부 교사 배신애 집사입니다.

7월 첫째 토요일과 주일,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란 주제로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아부에 와서 맞이하는 여섯 번째 여름성경학교지만 매년 새롭고 늘 기대가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주제에 맞는 코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환경을 꾸몄습니다.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우리 아기들이 좋아할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다른 때와 달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부모님의 신청을 받아(조금의 강요는 있었지만) 역할극을 준비하였는데, 영아부 부모님들의 숨은 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들려주는 엄마와 아빠들의 최고의 코치 예수님은 아기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니올림픽에서 아빠가 끌어주는 이불 썰매를 타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어

부가 되기를 바라며, 전도용 사탕 물고기를 만들고, 동화구연을 듣고 신나게 찬양하며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아이들 먹일 맛있는 밥과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덕분에 배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0~4세 어찌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기억이나 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 초신자 아빠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믿지 않는 부모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과 병행하는 가운데 여름성경학교 준비에 걱정이 많았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잘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배신애 집사(영아부 교사)



유치부

예수님의 꼬마 제자! 예교 유치부는 7월 13일 토요일과 14일, 21일 두 번의 주일, 교회 내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경학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는 한 달 전 시작한 릴레이 기도를 통해 부모-어린이-교사가 한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진행된 예배, 공과, 코너학습, 성경 인형극 그리고 주일 예배와 공과와 활동까지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로 선정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회복



시키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코치가 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제로 함께 외친 ‘내가 바로 교회예요!’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해 주신 청·장년 봉사자 선생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를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광령은 전도사

유년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교회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의 예배와 공과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신 예수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3개의 코너 학습 시간은 예배와 공과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올림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경험하였고, 교사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대형 미로 찾기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체험하였으며, 믿음의 완주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금메달과 트로피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고백하고 다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성애** 집사(유년부 교사)

초등부

7월 27일 토요일에 여름성경학교에 갔다. 처음으로, 재미있는 율동과 찬양을 했다. 찬양을 하고 조금 쉬는 시간에 간단한 게임도 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설교들을 준비를 했다. 전도사님과 같이 설교 말씀을 읽고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왔다. 베드로가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물고기를 잡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고기를 잡은 때는 달랐다.

말씀을 들은 다음 교회 담임 선생님과 같이 공과를 했다.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나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공과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코너 활동을 했다. 첫 번째 코너 활동을 할 때는 비행기를 날리고 공을 조심히 도착 지점까지 옮기고 고리 걸기를 했다. 두 번째 코너 활동에서는 친구와 협동해서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는 놀이를 했다. 세 번째 코너 활동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더 좋아하는 것을 색종이에 적고 그 적은 색종이를 구겨서 친구들과 같이 십자가를 만드는 놀이였다. 마지막 코너에서는 물고기 모양 빵에 잼을 바르고, 만든 물고기 빵 2개는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4개의 물고기 빵은 자기가 먹었다. 그리고 다시 초등부로 돌아와서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떡볶이랑 튀김을 나눠 먹는 시간도 가졌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

• **김서연** 학생(초등1부 화평1반)



소년부_ 소년부의 여름나기

소년부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 “내가 바로 교회예요”라는 고백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친구들의 귀한 소감문에서 발견합니다. 그 여백에서 선생님들의 기도로 쌓아 올린 섬김과 헌신의 수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 교사 이영선c

우리의 설렘과 기대로 출발한 버스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녁 예배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드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졌다. 수영장 물놀이와 캠프파이어는 정말 신났다. 2일차 저녁 예배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 기뻐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여름성경학교였다. • 강규리

버스에서 친구들과 미니올림픽을 기대하며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소망의 뜨락에 도착하였다. 숙소가 좁아서 당황했지만 다 함께 잠을 잘 때 불편하진 않았다. 무엇보다 강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다. 미니올림픽에서 게임과 수영이 역시 너무 재밌어서 다음날 눈뿔을 때 떠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슬퍼질 정도였다. 하지만 수련회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많아서 엄청 기뻐다. • 장하준

나는 작년 여름성경학교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는지 모른다. 예배를 드린 후, 공과공부를 통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배웠다. 특히 저녁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다. 눈물로 기도드린 그 시간이 마음 깊이 새겨져 계속 기억될 것 같다. 다양한 체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 좋았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믿음도 조금은 자란 것 같아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하우림

영어예배부_Jesus is the answer! GoGo9!

영어 예배부와 함께하는 ‘Summer GoGo9’이 7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GoGo9은 방학 기간 2주간 매일 아침 9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어로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제는 ‘Jesus is the answer’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틀에 한 번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action plan이 있고,



매주 금요일 프라이데이 나잇 챌린지도 있다.

유튜브 화면에서 친근한 영어 예배부 선생님을 만나니 아이들은 더 반가워했고,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 말씀의 주제, 내용, 영상, action plan 패키지 구성까지 선생님들의 기도와 준비가 느껴졌다.

방학 동안 GoGo9을 통해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Jesus is the answer! GoGo9!

• 박보은 집사(영어예배부 교사)

중등부_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중학교 마지막 수련회라 가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간을 때우려고, 학원에 가지 않으려고 수련회에 갔었다. 그런데 저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에 딱딱만 하던 내가 말씀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나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첫째 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임에도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좋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뜨겁게 찬양했다.

저녁을 먹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다. 또 조별 활동을 통해 조원들과 선생님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서먹함을 없애는 행복한 첫날을 보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둘째 날에는 함께 모여 조원들과 QT를 했다. QT 말씀을 돌아가며 읽고, 질문에 대해 서로 묻고 답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고 임원 임사들이 준비한 즐거운 게임을 하며 귀한 섬김에 고맙고 즐거웠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을 위해 어떤 것도 물어보시지 않고 따뜻한 부활의 밥상을 차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를 모르는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의 밥상을 대접하고 싶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할 때 느꼈던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수련회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김예원 학생

고등부_ 福音則生(복음즉생)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3학년 권순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항상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올해 고 3이 되면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름을 느끼고 또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는 것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첫째 날 저녁집회 기도회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저의 막힌 입을 뚫으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 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선 제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도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회에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도가 잘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더욱 크게 찬양하고 더욱 깊게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만 가지다 기도는 드리지 못한 채 기도회가 끝나자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많이 자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광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주님의 은혜는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는 평평 울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술술 잘 풀려야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제가 뿌듯해하는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꼭 기도만이 주님을 높여 드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더 잘 보이려고 드러온, 겉만 보여지는 기도보다 이날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드린 것을 더 기뻐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때에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 전에 발표한 고등부 학생의 간증문입니다.

• 권순형 학생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이슬 청년 1부 47대 이유지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오게 되면서 대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본가에서 다니던 교회도 자주 가지 않게 되고 외롭게 지내던 날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좋은 친구들이 필요했던 저는 매일 매일 기도를 했고 범어교회 청년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범어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범어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조장을 제안받았을 때, 처음이라 망설여지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나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수련회의 주제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련회 둘째 날에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고 조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을 실제 그분이 내가 거주하는 집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처럼 묘사한 책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 닫혀있던 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을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조원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와 조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 이유지 청년(청년부)

은은한 커피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우리 교회에 속한 봉사팀을 탐방하여 함께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우물가 분과를 방문하였습니다.

Q. 우물가 분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몇 분이 봉사하시는지요?

A. 국내전도위원회 소속 분과이며 분과장, 회계, 봉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물가 안에서는 네 분야로 나뉘어서 움직여요. 커피, 비커피(생과일 등), 설거지, 그리고 앞에서 주문받고 손님께 음료 전달하는 분들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Q. 주중과 주일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A. 주중에는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명이, 주일에는 청년 1명과 봉사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Q. 우물과 분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1. 많은 봉사자들이 10년 넘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권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분과장 제도에 순종해서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A2. 저는 우물가가 4층에 있을 때부터 합류했습니다. 우물가 봉사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구요~^^

Q. 우물가를 섬기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A1.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1부 예배 마치고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서 있다 보니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 녹초가 된답니다.

A2.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우물가가 가장 혼잡해요. 우물가를 섬기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잘 처리하시지만, 갑자기 10잔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주문은 조금 더 일찍 예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A3. 간혹 주문의 순서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주문서에 여러 잔이 들어오다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 음료 만드는 건 커피와 비커피로 나뉘어서 하다보니 한 쪽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도 금방 잊혀지니 그래도 감사해요.

Q. 우물가를 섬기면서 경험하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1. 가장 큰 은혜는 섬기시는 분들이 손발이 맞다는 거예요. 주일에 평균 300~350장 정도의 주문서가 들어오는데 한 주문서에 여러 음료일 경우도 있으니 엄청난 양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걸 봉사하시는 12분이 손발 맞추어 감당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A2.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그분들이 미안해하시면서도 감사하다며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용해주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있어요.

A3. 열심을 내어 섬기다 보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받은 은혜까지 소멸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열심과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정은 다 헛된 섬김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잘해서 칭찬 듣기보다 부족해서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섬기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A4. 지역주민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지만,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오시면 주문서에 ‘지역 단골손님’이라고 적고 최대한 친절히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범교회 식구가 되길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Q. 성도님들이 우물가를 이용하실 때 "이런 것은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1. 제일 중요한 것은 떠난 자리를 아름답게! 드신 음료를 정리하실 때 꼭 분리수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음과 잔을 한꺼번에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음료를 쏟거나 흘린 경우엔 봉사자들에게 얘기하시거나 뒷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 산돌서점 자리는 사랑방 모임을 많이 하시는 장소인데 뒷정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지요.

A2. 주일에 우물가 와이파이 사용이 안 됩니다. 동시간대 접속자가 몰리다보니 키오스크 주문이 내부로 지연 전달되어 부득이하게 막아둔 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A3. 저희도 구입 재료가 변경되면 비율 조정도 다시 하고, 신메뉴 개발도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엔 냉동 망고 당도가 달라서 비율 조정을 하기도 했구요. 그러니 음료를 드시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음료가 맛있다’는 한마디 해주시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정리 교회보팀

나의 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지상선은 공허를 느끼지 아니하는 실체의 일,
다시 불만을 느끼지 않는 일에 있다.
즉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일에만 인간의 지상선은 있는 것이다.

「김교신 전집 3 (성서개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공허를 느끼지 않으며 다시 불만을 느끼지 않는 삶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가?

•남봉락 집사(바울청년회)

뒤늦게 깨닫게 된 사실

지난 3월 11일 온라인으로 시작된 봉사단교육을 오늘 드디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라인 교육 2주, 집합교육 3주 그리고 현지적응훈련 8주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정이 없었지만 이 훈련과정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는 봉사활동의 목표를 ‘베트남을 더 잘 알아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3시간과 오후 4시간 이렇게 하루 7시간씩 7주 동안의 현지어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목표가 너무 naive(순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견딜 만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 복습을 하면서 진도에 맞추어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속도보다 망각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서 숙소에 와서 오래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진도를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그래도 견딜 만했지만 점심을 먹고 진행되는 오후 수업을 받을 때는 몸이 뒤틀리고 머리가 빙빙 돌고 심지어 구토가 날 정도로 어지러울 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늦게나마 깨닫게 된 사실은 ‘나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을 알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현지어 공부에 임하게 되자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넓히니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쯤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의 〈모두가 사랑이에요〉라는 곡입니다.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사랑하려면 먼저 과거에 가졌던 선입관과 이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더 큰 것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현지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분투와 피로의 연속입니다. 현지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지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하려면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지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과 만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주님과 만나게 되면 차츰 주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Those who sow with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편 5절)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글은 지난 2월 KOICA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국내교육 5주 및 하노이 현지교육 8주 총 13주의 교육을 마친 후의 소감을 기술한 글입니다.

•박용수 집사(베트남에서 / 1남전도회)



성례, 영적 유익의 통로

책을 통해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기획한 코너입니다. 올해는 송인규 교수의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란 책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살피고 예전의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호는 “성례”를 다룹니다.



성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니고 교회가 채택한 신학적 용어이다. 성례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지로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예배 시에 성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표현을 통해 내적 의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의거할 때, 성례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외적 표시 : 물, 떡, 포도주, 의식

둘째, 내적 의미 :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셋째, 둘 사이의 결합 :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발휘할 때, 외적 표시를 통해 내적 의미를 경험하게 됨

성례의 의식의 종류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만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첫째,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다.

셋째, 세례는 또 그리스도의 몸(교회)으로의 병입을 표시한다.

세례와 연관된 의식으로 유아세례와 입교, 학습, 세례 네 가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시적이고 행사적 성격이 강하다. 사람들은 수세자를 앞에 놓고 참관하고 축하해 준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많은 경우 세례 의식 또한 성례의 일종임을 잊기 때문에 그저 행사 분위기에 휩쓸리고 만다. 그러므로 집례자, 수세자, 예배 참석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시종일관 기도로써 마음의 끈을 조여야 한다. 또한 세례 의식이 상징하는 영적 실상인 하나님과의 생명에 참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병입됨을 충분히 누리도록 진심으로 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찬’ 뜻은 ‘거룩한 교통’으로, 일차적으로는 성찬 참여자들끼리의 교통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타낸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을 가지실 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성찬 시에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봉헌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화체설)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는 멀리서 경배는 할지언정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신약에 나타난 성찬의 의의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이 성찬의 핵심이며 합당한 마음 자세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전인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면밀히 점검해 본다는 의미이다. 또한 성찬의 의의를 곱씹어야 한다.

첫째, 주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적 유익들을 묵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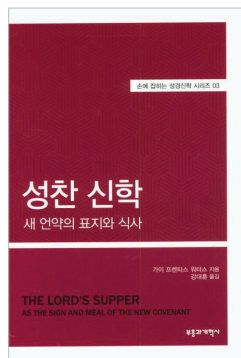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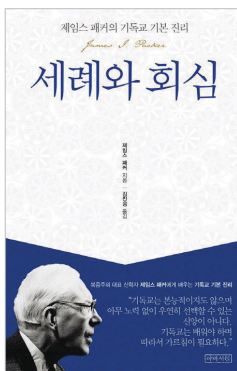
셋째, 성찬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 연합 의식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찬의 의의가 상기한 마음의 태도를 쫓아 활성화될 때, 영과 진리의 예배 또한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 장철웅 목사

생각하는 질문

-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에서 최대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장철웅 목사님이 추천하는 성례 관련 도서

『세례와 회심』 (제임스 패커)

『성찬 신학 새 언약의 표지와 식사』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

7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한패밀리 요양원 방문 예배 | 7월 5일(금)에는 사회봉사위원회 우애방문팀 주관으로 한패밀리요양원을 방문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단기선교 | 7월 8일(월)부터 12(금)까지 캄보디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기선교활동이 있었다.



사회선교 사역 협약식 | 7월 24일(수)에는 범어교회와 굿월스토어 간의 사회 선교 협약식을 맺었다. 물품 기증을 넘어 상호 간의 더 큰 유익이 되기 위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 7월 6일(토) 영아부를 시작으로 2024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부서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년1부 여름수련회 | 7월 7일(주일)부터 10일(수)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김수현 목사를 강사로 청년1부 여름수련회(주제: action re-action 은혜에 합당한 반응)가 있었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기도대성회 7월 14일(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대구동신교회 비전관 생명홀에서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렸다.

범어 ‘창(窓)’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는 범어인의 시선

부자지간(父子之間)

7월 20일 주일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였다.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가 말한 ‘멋진 죽음(인생)’이 생각났다. 태어날 때 태어난 한 사람은 울고 주변 사람은 웃는 만남, 죽음의 때 죽을 한 사람은 웃고 주변 사람은 우는 이별. 이런 출생(만남)과 죽음(이별)은 참 잘 산 인생이라 생각한다. 인생에서 부자지간의 관계는 1촌으로 가장 가까운 만남과 이별을 하는 사이다. 올바른 1촌지간, 부자지간에 관해 생각하며 잘 산 인생을 그려본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자성어와 문장 중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며 혼자 문제를 출제해 보았다.

(문제) 다음 중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자관계를 고르시오.

1. 사친이효(事親以孝, 삼국유사)
2. 부자유친(父子有親, 동몽선습)
3.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
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3:17, 마17:5)

보기 1번은 신라의 원광대사가 화랑들에게 준 가르침이고 보기 2번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삼강오륜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부자의 도리를 어린시절부터 체화시킨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친이효보다는 부자유친의 사자성어가 덜 권위적이며 쌍방의 노력이 보여 좋아하는

다. '부모를 섬김은 효로써 한다' 보다는 '부자간에는 가까움(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더 맞다는 생각이다. 보기 3번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 중 5계명으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인간관계의 첫계명이며 약속의 계명이다. 보기 4번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몇 번이 정답일까 아니 몇 번이 가장 마음에 들까라며 자문해 본다. 모두가 맞는 답이기에 정답 하나를 고를 수 없고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도 달랐다. 개인적으로는 4번의 말을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나님은 참 스윗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세례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셨을까 생각된다. 지금은 나의 자식들이 많이 자랐지만 나도 이 말을 자식에게 일대일로도, 공개적으로도, 낮은 강과 높은 산에서도, 자주 해보아야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 신주철 집사(예사모)

범어범어(泛魚凡語)

한 달 동안 예배당 곳곳에 흘렸던 말, 말, 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유통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기도회 설교 중

“Nothing+God=Everything
Everything-God=Nothing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넣으십시오.”

고등부 여름수련회 박광리 목사 설교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후회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나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일예배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이로아 (이신훈, 이지영C)



안유찬 (안병규, 차효민)



최이도, 최소윤 (최상용, 장계선)



박재울 (박성희, 김다인)



박지안 (박재민, 이신원)



양선우 (양현성, 이다겸)

■ 출산

6월 28일 : 이현민 성도(황해군) 득남

■ 축하 공연

비올라 독주회 : 전지윤 성도(살롬찬양대 단원), 공간울림, 7월 9일(화) 오후 7시30분

8월 교회 행사 안내

- 4일(주일) : 전체 피택자 교육 오후5시30분
청년부실(4층)
- 11일(주일) : 광복절 기념 주일
- 18일(주일) : 정기당회
- 25일(주일) : 오후예배 청년/장학위원회 주일
- 30일(금) : UPS 하반기 개강기도회

8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7월 29일(월) ~ 8월 9일(금) : 영어예배부 GOGO 9
- 8월 17일(토) 오후1시 : 대구수성주교
성경암송쓰기대회 및 울동경연대회
- 8월 24일(토) 오전10시~오후 4시
대구수성주교 연합 여름성경학교(미자립)

편집장 | 이창권

부편집장 | 허윤정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박용수
배지연,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이영선C
임병하, 조성희A, 최문자, 최현규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임병하, 조성희A, 최문자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POMO CULTURE CLASS

2024
가을학기

범어문화강좌

범어문화센터는 수성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강비로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미나 여가활동, 그리고 잊혀져가는 지난날의 배움을 되새김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은 범어문화센터로 오셔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가활동과 실력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범어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접수기간 | 2024. 8. 11(일) ~ 9. 1(일)

개강일 | 2024. 9. 3(화)부터 각 강좌 해당 개설 요일

수강기간 | 2024. 9. 3(화)부터 12주 과정

접수방법 | 문화강좌 전단지(포스터) 내 QR코드 스캔해서 수강신청

수강료 | 30,000원 (교재·재료비 별도)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352-1575-3805-93 (예금주 : 길미정)

수강대상 | 성별·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수강문의 | 010-3515-5475 (평일 오후 7시~9시)

위치문의 | 범어교회 행정사무실(1층) ☎ 053) 667-8900

*강좌는 입금자순 마감이며, 수강인원 미달시 폐강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QR코드

수강료 입금시 유의사항

*입금통장에 **강좌명/신청자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송금해 주세요. (표기예시 : 영어초급홍길동)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담당자(010-3515-5475)에게 반드시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개강일 전까지 수강료 미입금시 자동취소 됩니다.

수강료 환불규정

▶개강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 후 : 1개월 수업일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남은 수업일수 환산하여 환불
1개월 수업일수 1/2 경과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달 환불

*수업일수 산정 : 월 4회 수업을 기준으로 함

*반환금액 산정 : 환불요구가 담당자에게 접수(전화 or 문자)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POMO
대림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